

2025.04.09



# 변화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한국 수출산업

NICE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박세영 실장

NICE신용평가



#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 1. 미국의 통상 및 산업정책 | 관세 부과 강화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통해 무역적자 해소, 경제안보 등을 위한 무역협정 재검토 및 추가 관세도입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추가 품목별 관세 도입 검토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행정명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ection1 (목적)	- 국가 안보 및 경제안보 보장 -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생산성 제고
Section2 (불공정 불균형 무역 교정)	- 무역적자 주요 원인 규명, 적자 해소조치 권고(보편 관세 등) - 대외수입청 신설 타당성 및 실행계획 방안 - 불공정 무역행위국 조사 및 대응 방안 - 기존 무역 협정 검토 및 적절한 개정안 검토 -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정책 및 규정 검토
Section3 (대중 경제통상 정책)	- 제1차 미중무역합의(2019) 준수 여부 조사 및 관세 또는 필요 조치 권고 - 무역대표부(USTR) 대중국 301조 조사 보고서 검토 -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관련법안 검토 및 변경안 제시 - 중국에 부여된 미국의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 및 평가
Section4 (경제안보)	- 미국 산업-제조 기반 경제안보 검토 및 평가 -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제외, 면제 및 기타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 검토, 평가 - 수출통제시스템 검토, 기술적우위 유지방안 권고

자료: America First Trade Policy, White House (2025.01.20), NICE신용평가 정리

##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정책 Timeline

시기	주요 내용
2025.02.01	- 캐나다, 멕시코 25% 추가 관세(3/4일로 조정), 중국 10% 추가 관세 발표
2025.02.10	- 섹션 232 관세 복원발표(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2025.03.04	- 캐나다/멕시코 대부분 수입품에 25% 관세, 캐나다 에너지에 10% 관세 발효, 중국 관세 20%로 인상, 최소 통관 면제 일시 중단
2025.03.07	- 캐나다/멕시코 제품 중 USMCA 준수 상품은 4/2까지 관세 면제
2025.03.12	-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2025.03.26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관세부과 발표, USMCA 적용 자동차부품은 면세 유지
2025.04.02	-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베트남 46% 등

자료: 언론보도, NICE신용평가 정리

# 1. 미국의 통상 및 산업정책 |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및 중국과의 디커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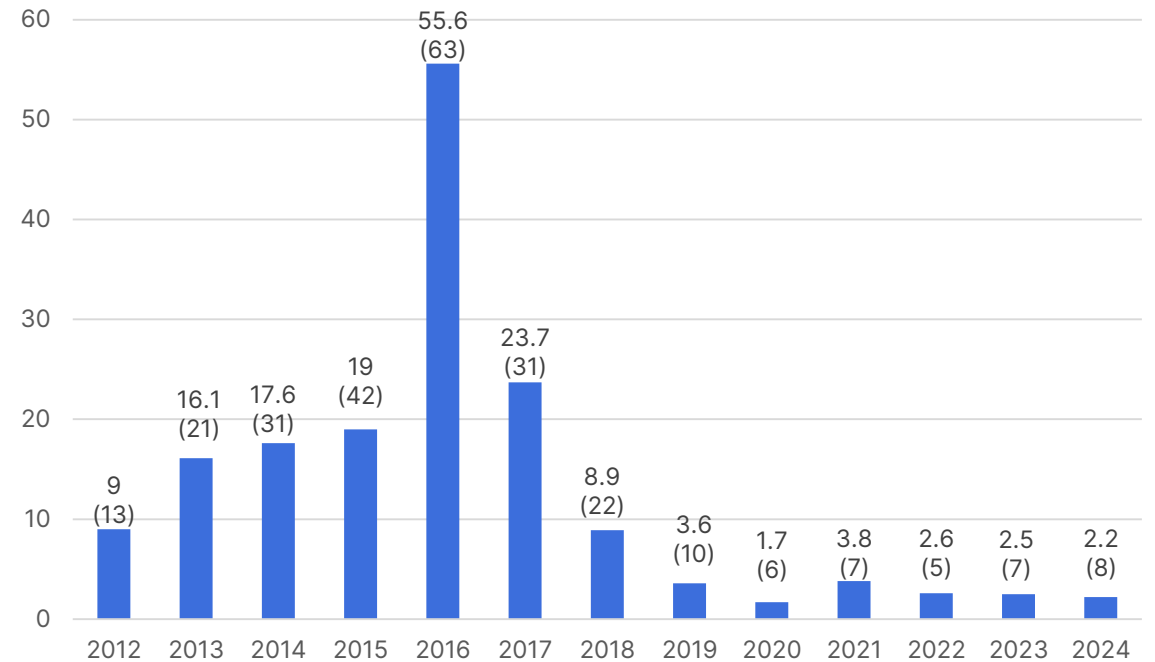
- 제조업 부흥을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지속되는 정책기조
-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제한 강화

##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행정명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ection1 (원칙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투자 정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li> <li>- 동맹국 및 파트너로부터의 투자는 유인, 중국 등 적대 국가의 전략적 산업 투자에 대한 투자는 제한</li> </ul>
Section2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이 미국 내에서 개발되도록 동맹국 투자 촉진, 신속한 처리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li> <li>- 중요 기술 및 인프라, 개인 데이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등 적대국의 투자 제한</li> <li>- 반도체, 인공지능 등 중국의 군민용합 전략을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 마련</li> <li>-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활용하여 중국 등 적대국이 중요 기술 및 인프라,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li> <li>-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을 활용하여 중국 군수 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억제</li> <li>- 1984년 체결된 미중 소득세 조약의 중단 또는 종료 여부 검토</li> </ul>

자료: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White House (2025.02.21), NICE신용평가 정리

## 중국의 대미 투자 추이 (단위: 십억USD)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주: 괄호 안은 건수

# 1. 미국의 통상 및 산업정책 | 에너지/환경 분야의 정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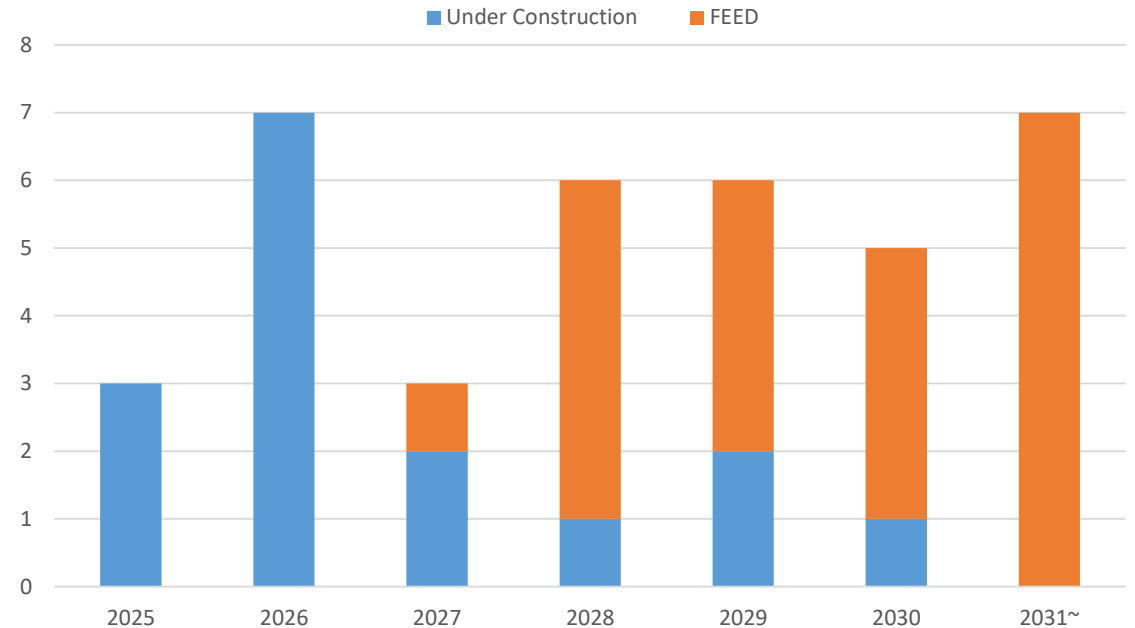
-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통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 IRA 법안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추진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LNG 수출 프로젝트 확대 촉진을 통해 화석연료 개발 가속화

##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ection2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 폐지, 주별 배출가스 규제 종료</li> <li>- 전기차 외 다른 유형의 차량 구매를 막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 방안을 검토</li> </ul>
Section7 (그린뉴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기관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른 자금 지급 중지</li> </ul>
Section8 (국가안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수출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에너지 장관에게 지시</li> </ul>

자료: Unleashing American Energy, White House (2025.01.20), NICE신용평가 정리

## 미국 LNG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추이 (단위: 건)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정리  
 주: 프로젝트 별 생산개시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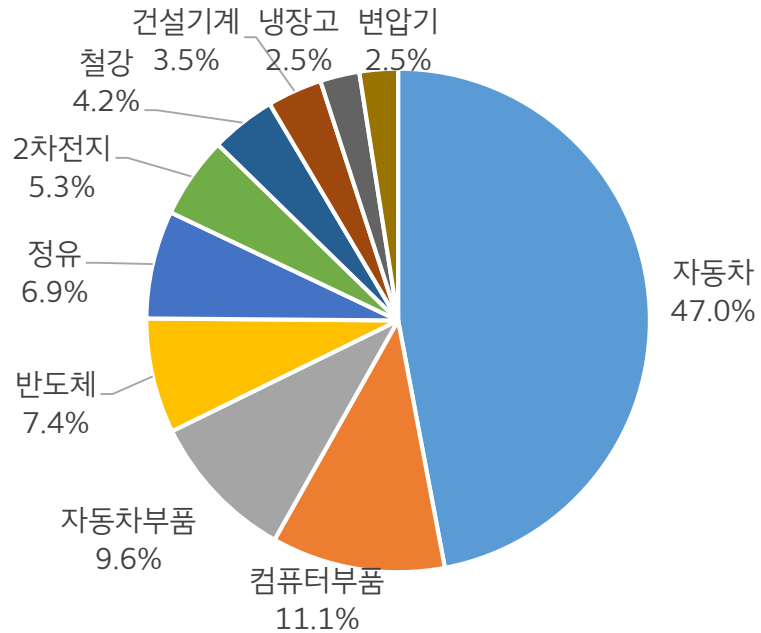
#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2. 2차전지
3. 반도체
4. 조선

# 0. 상호관세 | 대미 수출품목 및 상호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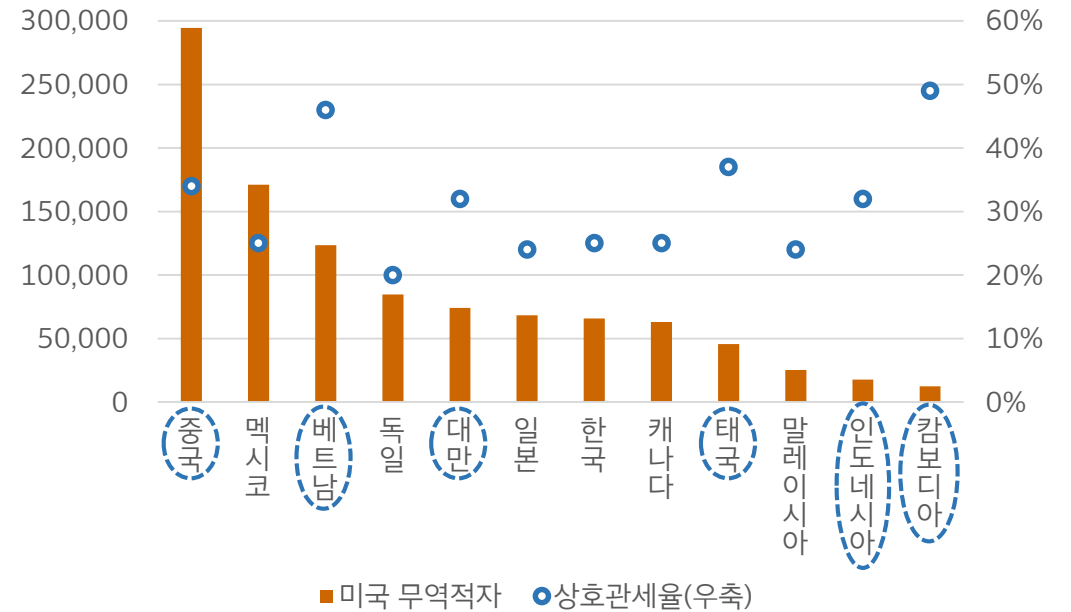
- 자동차/자동차부품, 반도체, 전자제품, 2차전지, 석유제품, 철강 등이 주요 수출품목
- 우리나라 상호관세율 25%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큰 나라 중심으로 상호관세율이 높게 책정

한국의 對미국 수출 10대 품목별 비중(2024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국가별 미국의 무역적자 및 상호관세율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 백악관



# 0. 상호관세 | 주요 수출 산업 영향

-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쟁사 대비 미국내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산업의 관세영향이 높음
- 최종재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가 원가상승 요인, 중간재의 경우 최종재에 대한 관세부과가 수요감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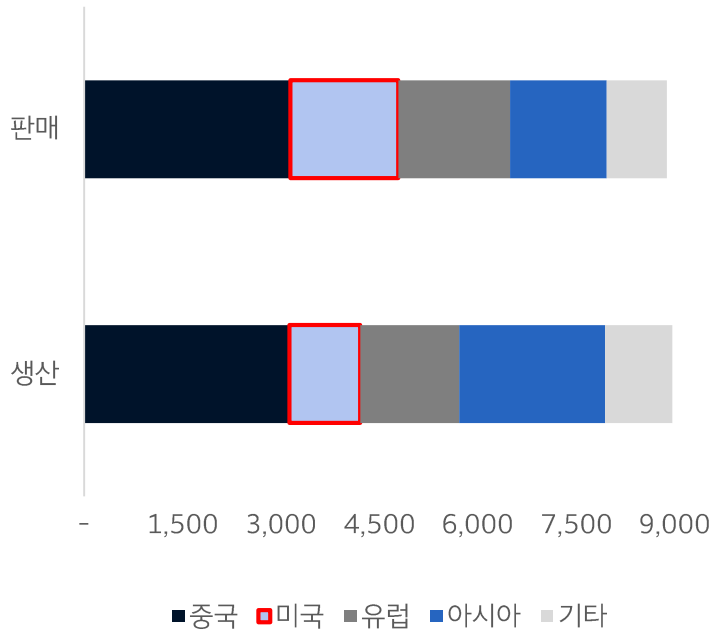
	자동차	정유	2차전지	전자	반도체	철강
대미 무역수지 (억불)	414	44	34	30	74	29
미국시장 의존도	40%	9%	30~50%	25~30%	7.5%	11%
미국 생산비중	41%	0%	90% 이상	세탁기, 건조기	10% 미만 (파운드리)	10% 미만
미국외 생산	멕시코10만대, 한국 100만대	한국	한국	냉장고,TV(멕시코) 스마트폰(베트남)	한국, 중국	한국
경쟁사 미국생산 비중	60~100%	20~40%	95%	낮음	6~20%	10% 내외
경쟁사 대비 영향	높음 (중장기 완화)	보통 (정유제품 관세면제)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간접적 영향	원가부담↑	원가부담↑	전방제품 수요↓ 원가부담↑	원가부담↑	전방제품 수요↓	전방제품 수요↓

자료: 무역협회, 각사공시자료, NICE신용평가정리및추산

# 1. 미국 산업 현황 | 자동차

- 미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판매량을 하회하며 자동차 제품에서 1,600억\$ 규모의 무역적자 발생
- 전기차 시장에서는 Tesla 제외한 GM, FORD, Stellantis 미국 전통 OEM의 시장점유율은 열위한 수준

지역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비교 (단위: 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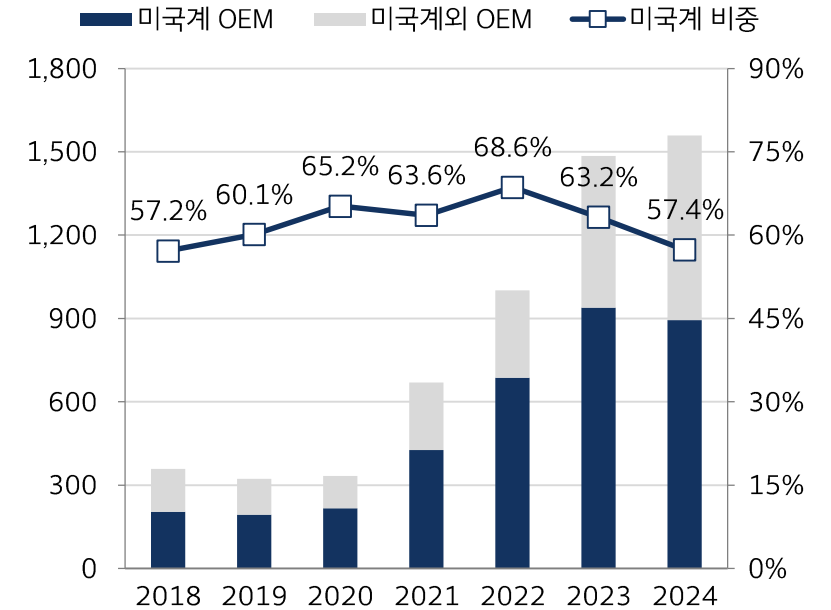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2024년)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 (단위: 천대)



자료: Trademap(2024년)  
주: HS코드 8703기준 = 승용 자동차

미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 (단위: 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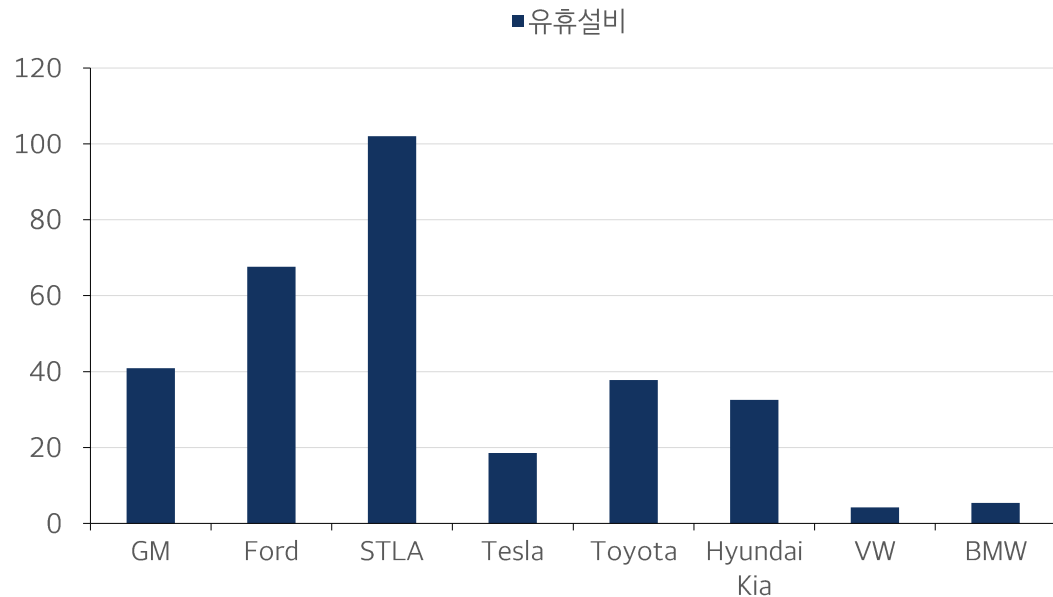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 2. 미국 정책적 대응 현황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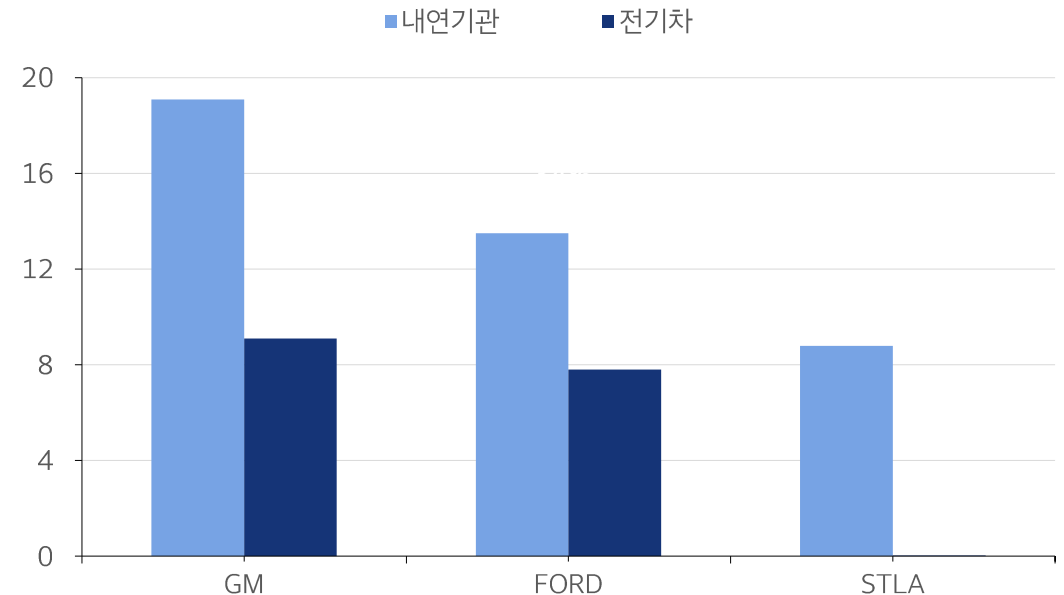
-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 확대,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유도
- 전기차 전환 지원을 통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 확보

주요 회사별 미국 내 유희설비 규모 비교 (단위: 만대)



자료: Marklines(2024년)  
 주1: 유희설비 = 연산 생산 가능 물량 - 실제 연간 생산량  
 주2: 현대차·기아는 2025년 준공되는 조지아 공장 포함(연간 30만대 생산가능)

미국 자동차 회사 파워트레인별 점유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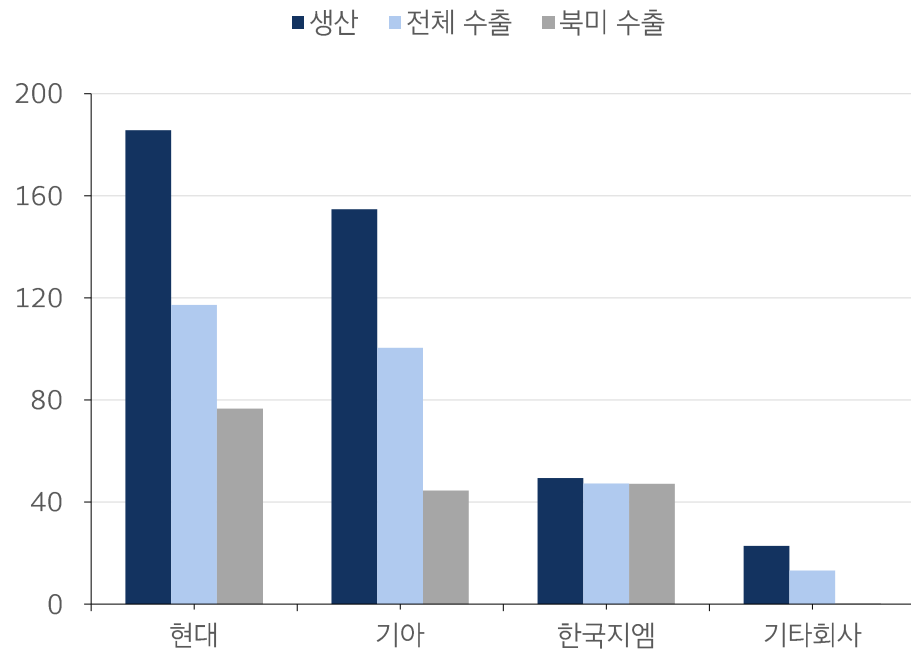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주: 2024년 기준

### 3. 국내 산업 현황 | 자동차

- 2024년 기준 현대차그룹의 대미 판매물량 170만대 중 수출물량 약 101만대가 관세부과 위험에 노출
- 메타플랜트 준공(30만대) 및 증설(20만대) 통해 중장기적으로 현지생산 12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만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주1: 생산 및 수출 대수는 2024년 기준  
 주2: 기타 회사 = 타타대우,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설비 현황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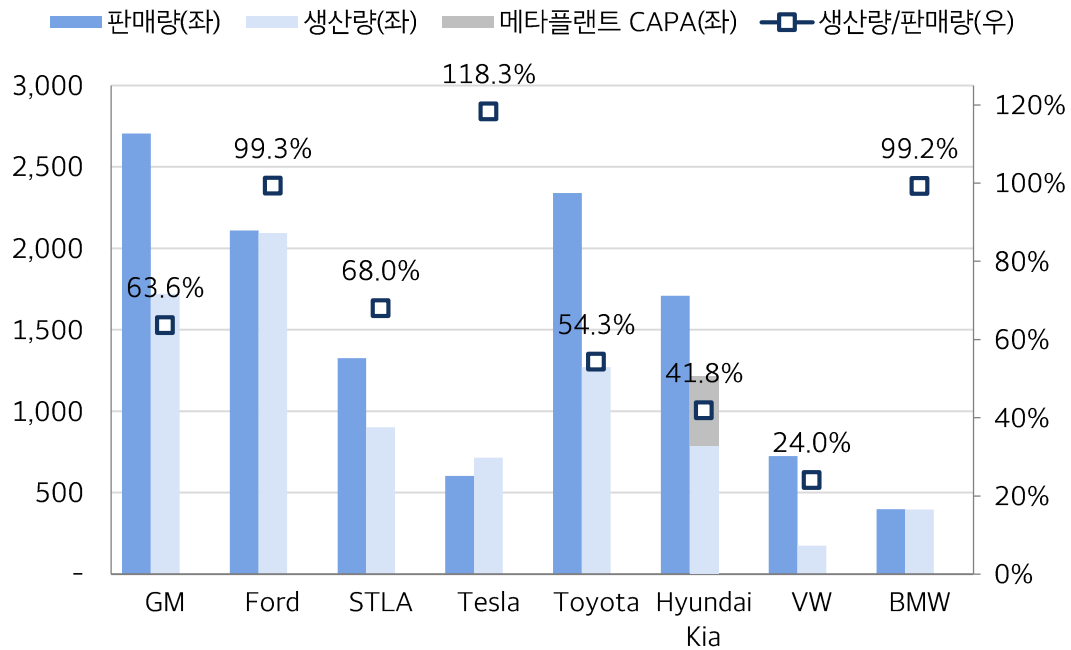
구분	완공연도	현재 CAPA	증설	증설 후 CAPA
현대차 Alabama	2005년	338,000	-	338,000
기아 Georgia	2010년	340,000	-	340,000
현대차/기아 Georgia 메타플랜트	2025년	300,000	200,000	500,000
합계		978,000	200,000	1,178,000

자료: 각 사 공시 및 제시자료(2024년), NICE신용평가 정리  
 주: CAPA(Capacity) = 연간 생산 가능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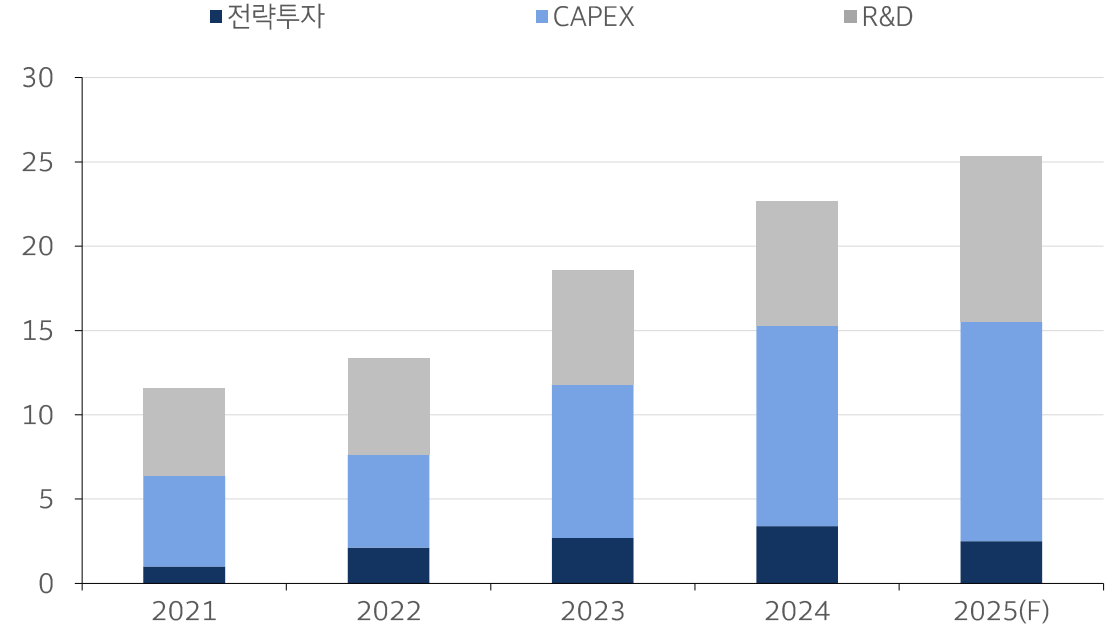
# 4. 영향 | 자동차

- 단기적인 관세부담 불가피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영업실적 저하될 전망
-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등 210억 불 규모의 투자계획 발표함에 따라 재무부담 확대 전망

미국 내 OEM별 연간 판매 및 생산 비교 (단위: 만대)



현대차·기아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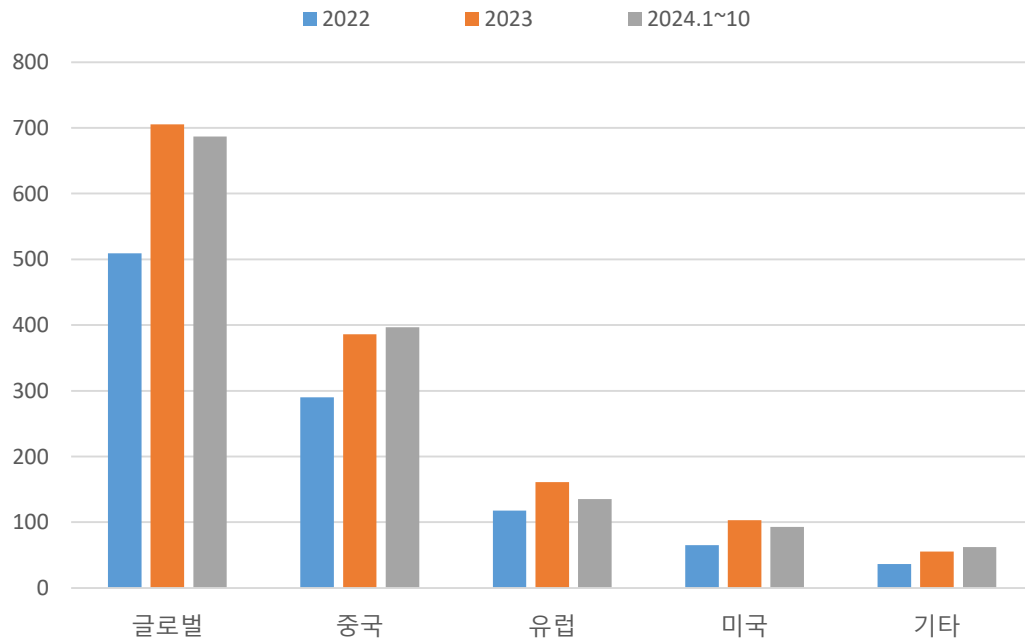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2024년)  
 주: 현대차·기아의 생산물량은 메타플랜트 연간 생산가능물량(50만대) 포함 기준

자료: 현대차·기아 공시 및 제시자료(자동차부문 미국 투자 현대차 기아가 전담 가정)

# 1. 미국 산업 현황 | 2차전지

- 미국의 2차전지 시장은 전방 수요 증가로 성장세 보이며 중국, 유럽에 이어 글로벌 3위 규모
- 자국기업 보다는 보조금 등 정책지원에 따라 한일 2차전지 기업들 위주로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 지속

주요 국가별 2차전지 사용량 추이 (단위: GWh)



자료: SNE리서치

미국 2차전지 기업별 셀 생산능력 및 생산량 (단위: GWh)

구분	2023		2024		2025F
	생산능력	생산실적	생산능력	생산실적	생산능력
LG에너지솔루션 (JV포함)	56	15	106	31	146
SK온 (JV포함)	22	14	22	6	50
삼성SDI (JV)	-	-	-	-	33
파나소닉 (JV포함)	38	37	38	37	69
Gotion	-	-	10	N.A.	20

자료:Marklines, SNE리서치, 각 사 IR공시자료를 토대로 NICE신용평가 추산

주1: Tesla는 2024년 3분기부터 4680배터리를 생산중이나 생산CAPA와 생산실적 자료확인 한계로 제외함

주2: 생산실적은 AMPC 수령액을 토대로 NICE신용평가 추정. 단, AMPC는 셀/모듈 비율에 따라 35~45USD/KWh 수취가능하나, 데이터 한계상 전액 셀 생산인 것으로 가정(35USD/KWh)

## 2. 미국 정책적 대응 현황 | 2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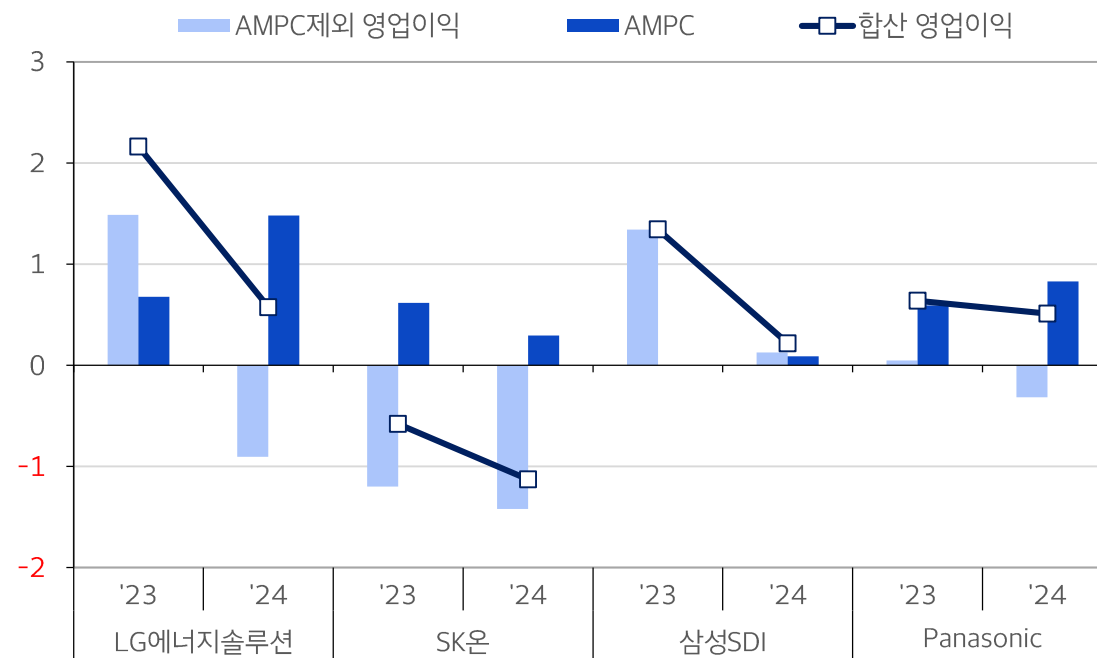
- 환경규제 완화, 구매보조금 축소 등 전동화 정책 속도 조절로 자국 경쟁력 강화 시간 확보
- 외국기업에 혜택이 큰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의 축소/폐지 추진

미국의 전기차 및 2차전지 관련 주요 정책

구분	관련법안 및 규정	내용	트럼프 행정부
구매자 보조금	개인용 청정차량 세액공제 (IRA, 30D)	요건 충족시 최대 7,500USD 세액공제 제공	축소 or 폐지 예상
	상업용 청정차량 세액공제 (IRA, 45W)	요건 충족시 최대 40,000USD 세액공제 제공	
생산자 보조금	첨단제조세액공제 (IRA, 45X - AMPC)	셀 35USD/kWh 모듈 10USD/kWh	
환경 규제	기업평균연비제도 (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OEM별 판매 차량 평균연비 규제	

자료: 미국 Inflation Reduction Act, NICE신용평가 정리  
 주: AMPC는 2032년까지 단계적 축소 후 폐지 예정('30년 75%, '31년 50%, '32년 25%, '33년 이후 0% 적용)

2차전지 기업별 AMPC 수혜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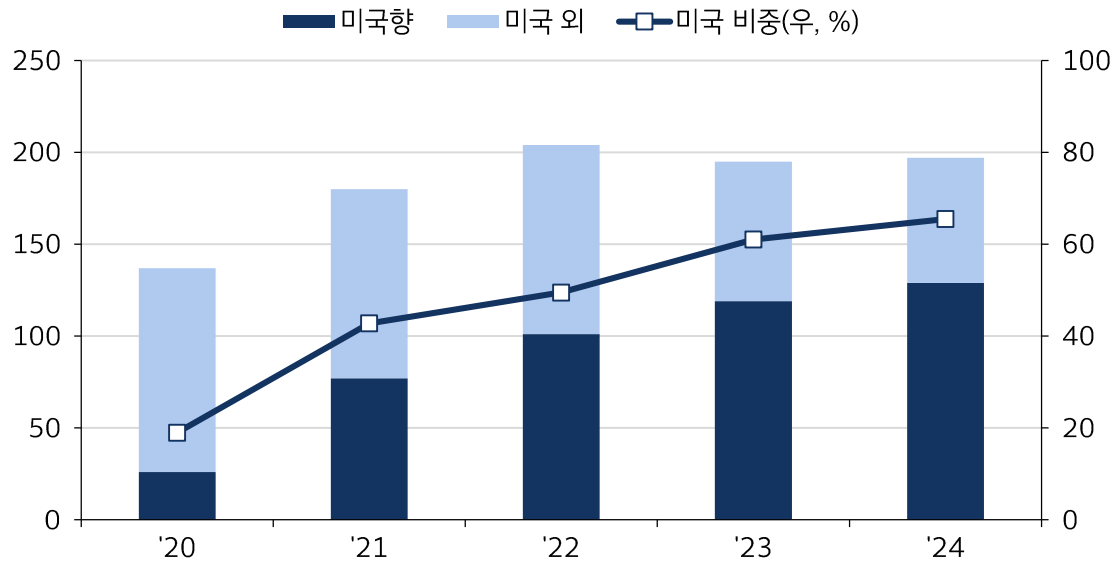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주: Panasonic의 AMPC 수혜액은 영업이익의 반영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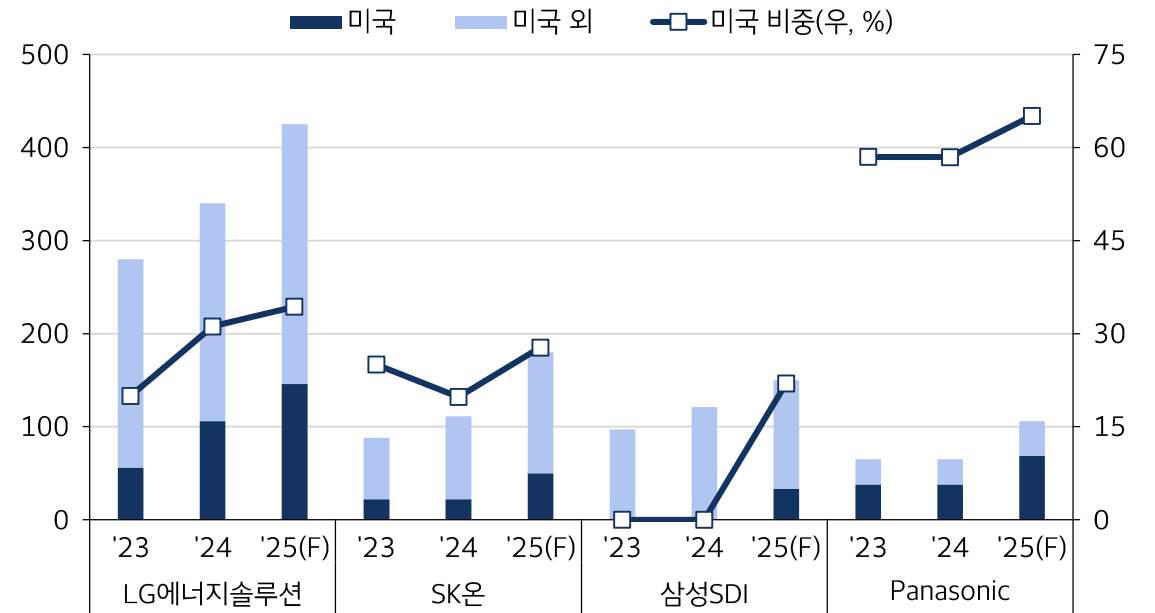
### 3. 국내 산업 현황 | 2차전지

- 국내 2차전지 수출물량 중 미국향 비중은 65%. 기업별 북미시장 판매비중은 30~50% 수준
-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늘려왔으나, 업황 저하로 투자 속도 조절

국내 2차전지 총수출 및 미국 비중 추이 (단위: 천톤)



주요 2차전지 기업 미국 생산능력 및 비중 (단위: GWh)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정리

주: 수출 품목은 HS CODE 850760 기준. 단, ESS용, 전기차용, 공구용 등 비차량용 품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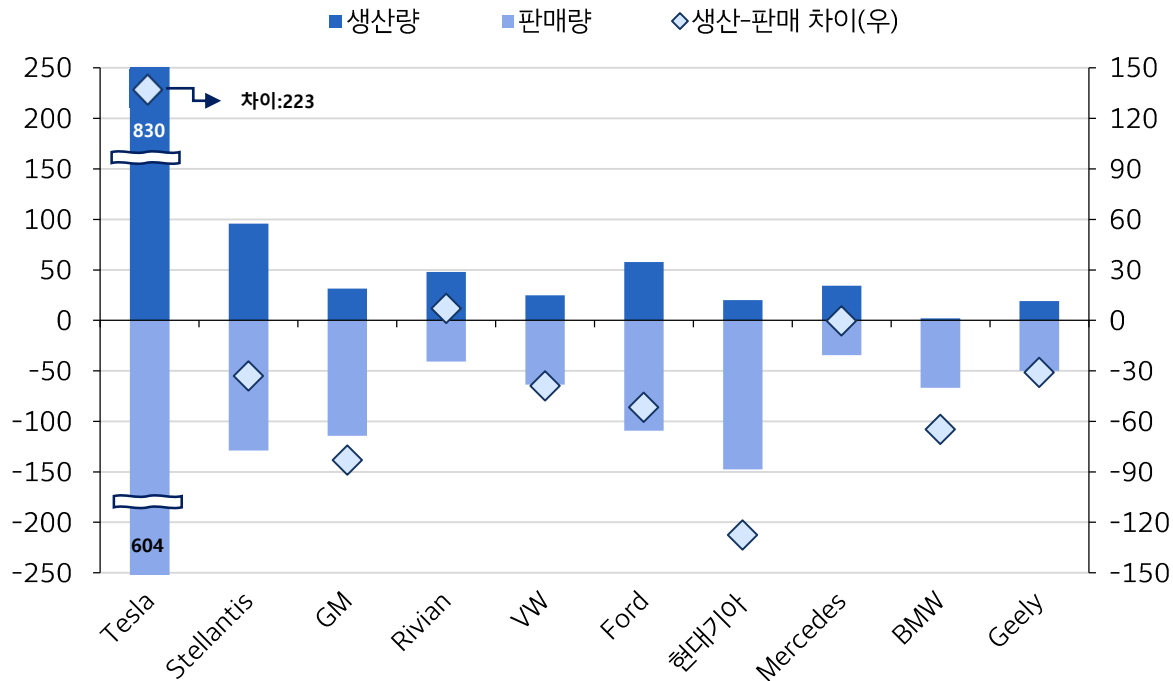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각 사 IR/언론 보도자료 토대로 NICE신용평가 정리



## 4. 영향 | 2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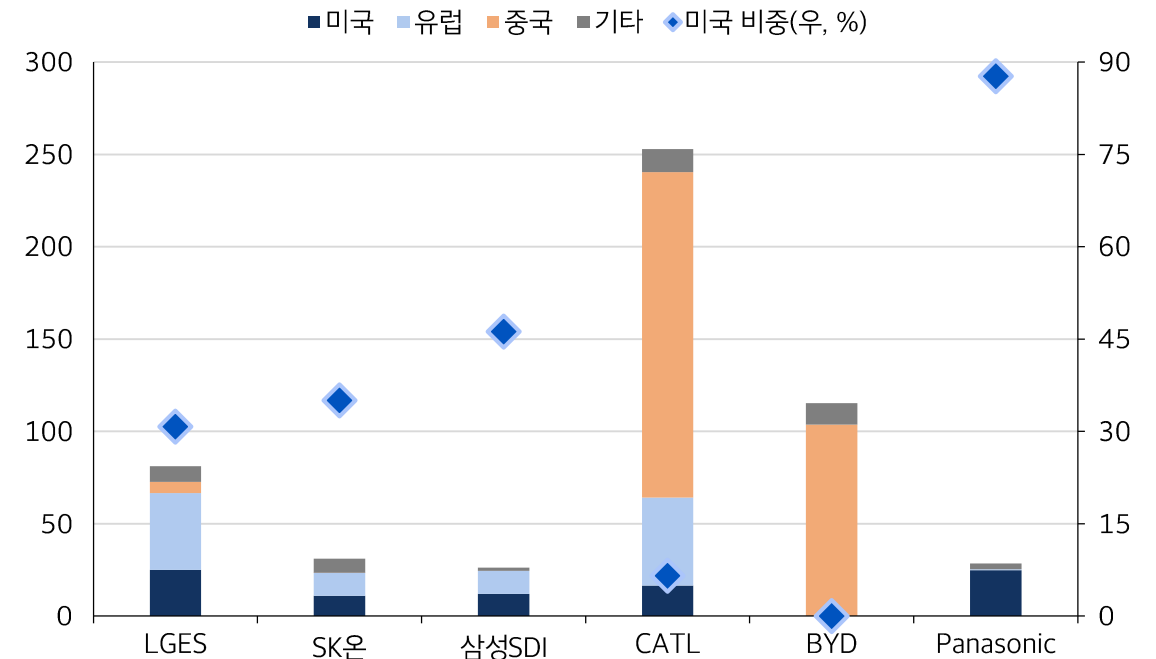
- 관세부과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미국 생산비중이 낮은 소재기업에 대한 관세부과시 원가부담 상승 전망
-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OEM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쟁사 대비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

OEM별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 및 판매량 격차 (단위: 천대)



자료: Marklines,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주요 2차전지 셀 기업의 권역별 판매량 및 비중(단위: G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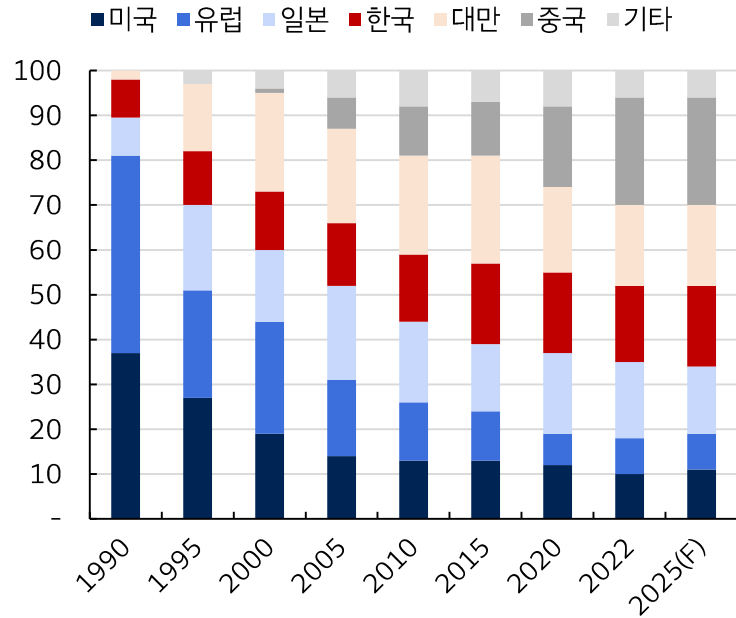


자료: SNE리서치 등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NICE신용평가 재구성  
주: 2024년 1~10월 판매량 기준

# 1. 미국 산업 현황 | 반도체

- 반도체 소비량 대비 자체 생산 역량 부족. 특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제조 역량 미흡
- 중국에 이어 최대 반도체 수입국으로 반도체 품목에서 무역적자 확대 중

국가별 반도체 생산 CAPA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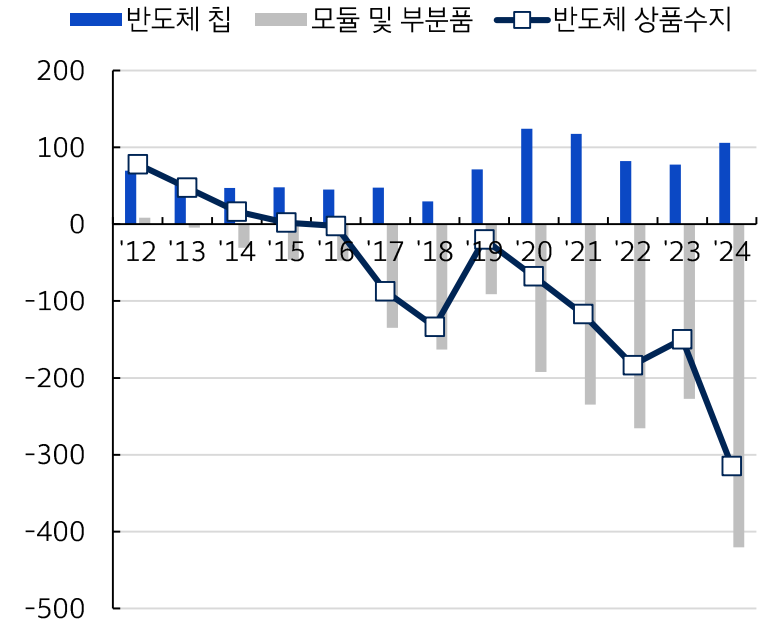
자료: SIA  
주: 8인치 및 12인치 웨이퍼 기준

AI서버 관련 반도체의 국가별 생산 현황

기업	주요 제품	생산국가	패키징 국가
Intel	CPU	미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TSMC	GPU	대만	대만
SK Hynix	HBM, eSSD	한국, 중국	한국
Samsung	HBM, eSSD	한국, 중국	한국
Micron	HBM, eSSD	대만,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추정)

자료: 시장자료

미국의 반도체 상품수지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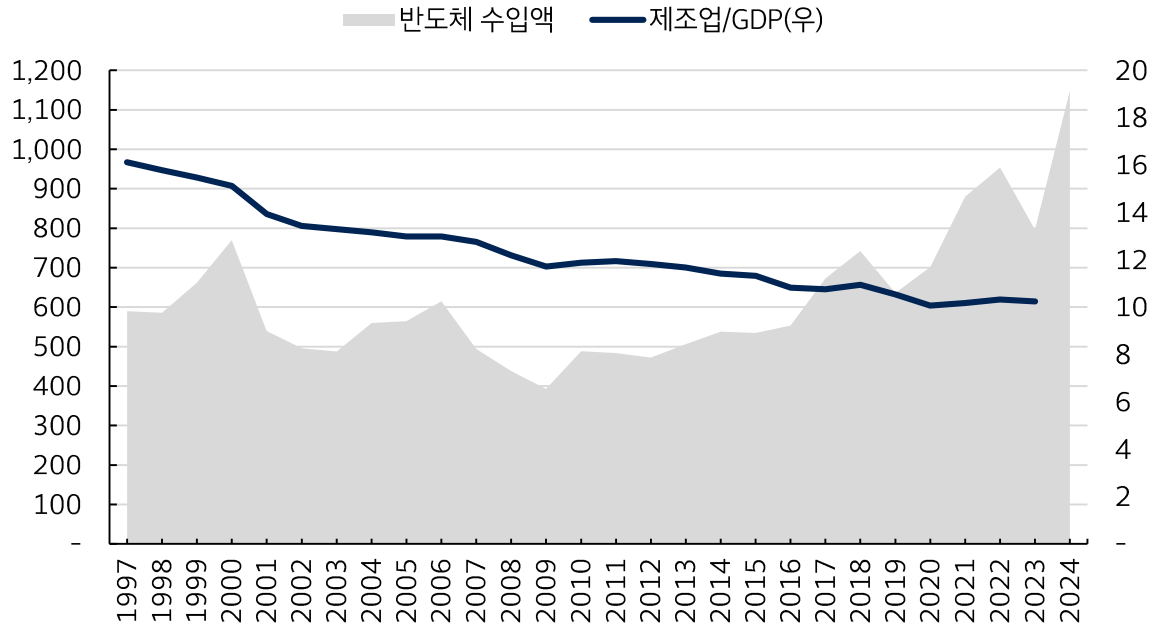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미국 정책적 대응 현황 | 반도체

- 보조금 지급보다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 도모
-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규제 강화 기조 유지 전망

미국의 반도체 수입액 및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단위: 억\$, %)



자료: 미국경제분석국,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주요 대중 반도체 규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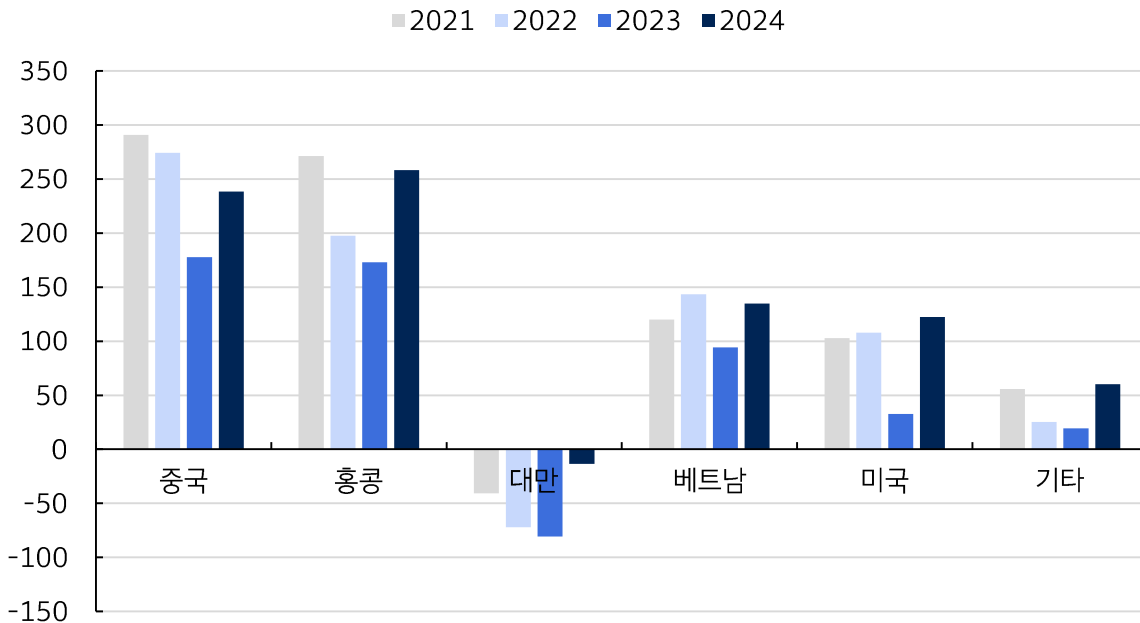
시점	정책	주요 내용
2020.10	AI가속기 수출규제(1차)	A100, H100 등 고사양 AI가속기 수출 규제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D램 18나노 이하, 낸드 128단 이상, 로직 16~14나노 이하 생산 장비 수출 통제
2023.10	AI가속기 수출규제(2차)	A800, H800 등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AI가속기 수출 규제
2024.12	HBM 수출 통제 (2025.01.01 시행)	HBM의 중국 수출 통제(구세대 제품인 HBM2 포함)
2025.01	GPU 국가별 수입상한제 (2025.05 시행 예상)	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 수입 제약 없음 (한국, 대만, 일본,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 등 18개국) ② 우려국가 - 거부 추정 원칙 적용하여 사실상 수출 금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 등 23개국) ③ 기타국가 - 국가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VEU) 신청 시 2년간 32만개 GPU 구입 가능, 미 승인 시 5만개 가능(정부간 별도 합의 시 10만개 구입 가능)

자료: 미국 상무부

### 3. 국내 산업 현황 | 반도체

- 대미 반도체 수출은 153억불로 전체 10% 수준이나, 간접수출까지 감안하면, 대미의존도는 높은 수준
-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생산라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 미국 생산공장은 오스틴 파운드리 Fab에 불과

한국의 주요 국가별 반도체 무역수지 현황 (억\$)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1: HS코드, 8473, 8542, 8523 기준  
 주2: 기타 수치는 나머지 국가들의 총 합계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해외 공장 현황

기업	국가	지역	분야	생산비중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메모리)	45%
	중국	쑤저우	패키징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D램(메모리)	40%
	중국	대련	낸드(메모리)	22%
	중국	충칭	패키징	

자료: 시장자료  
 주: 생산 비중은 해당 기업 내 각 분야별 전체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 4. 영향 |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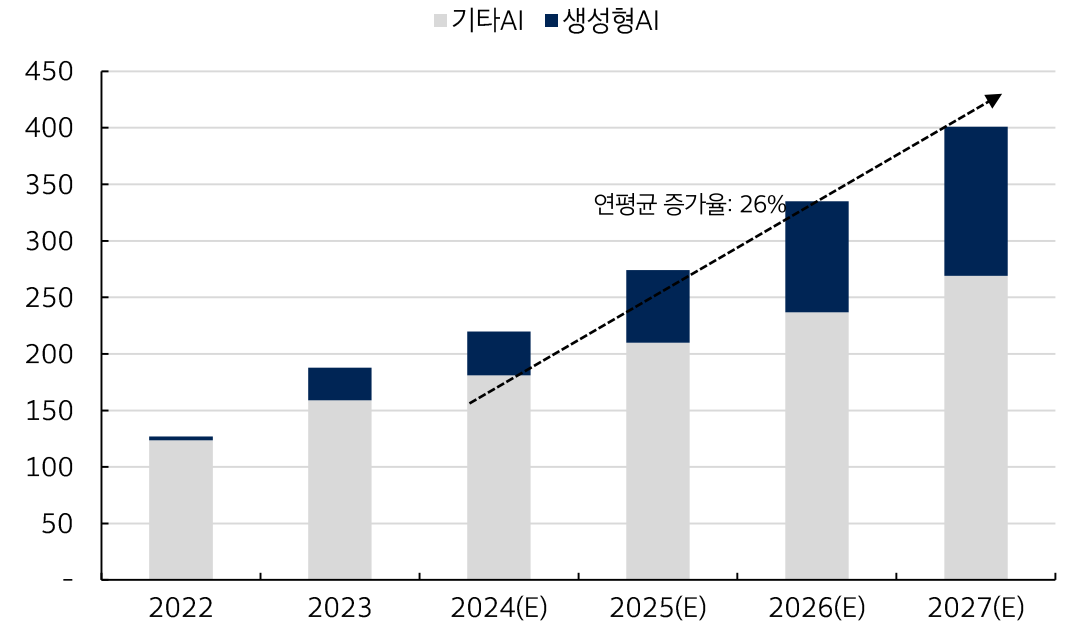
- 관세부과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단, 미국의 상호 관세 도입으로 인한 IT제품 수요 위축은 리스크
- 대중규제는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긍정적, 중국 생산시설의 효율성 저하, 중국시장 판매기회 축소 등 부정적요인 수반

국가별 메모리반도체 생산 비중 (단위: %)

국가	DRAM	NAND
한국	53.6	32.6
중국	21.0 (13)	25.3 (10)
일본	5.8	30.0
대만	18.4	2.0
싱가폴	-	8.0
미국	1.2	2.1

자료: 시장자료  
 주: 괄호의 수치는 한국기업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중

중국의 인공지능 투자 전망 (단위: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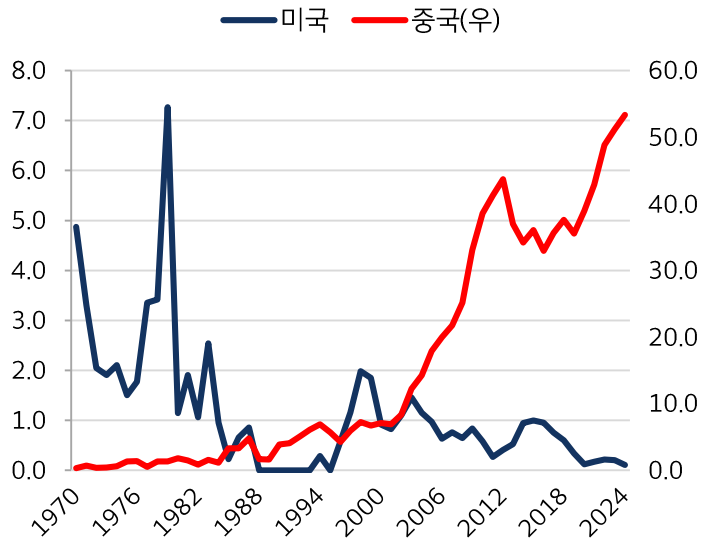


자료: IDC

# 1. 미국 산업 현황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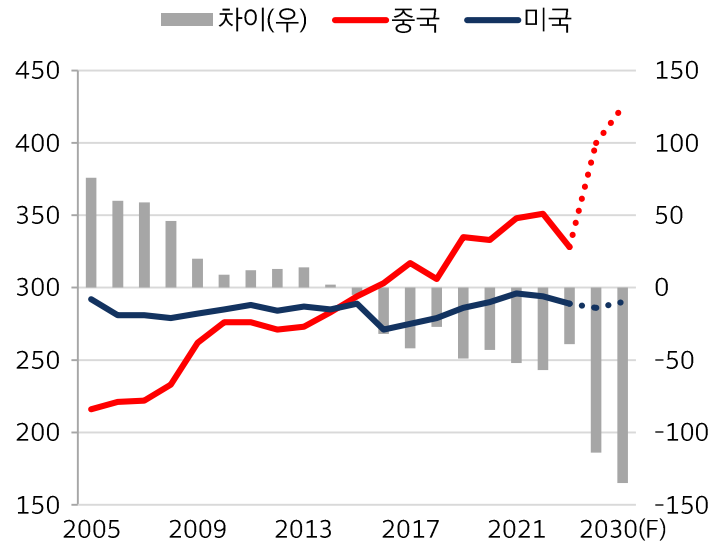
- 장기간 조선업 쇠퇴로 조선 능력 크게 축소(시장점유율 0.1%)되었으며,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 확대
- 외국 국적의 상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무역 구조

미-중 조선 시장 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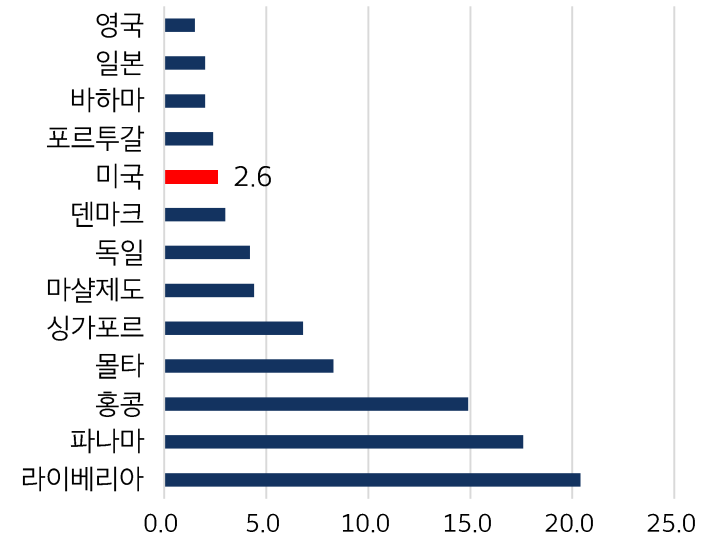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주: 인도량(CGT) 기준

미-중 해군 함정 규모 비교 (단위: 척)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ICE신용평가  
주: 잠수함, 수상함, 상륙함 기준

미국 해상 무역의 국적별 상선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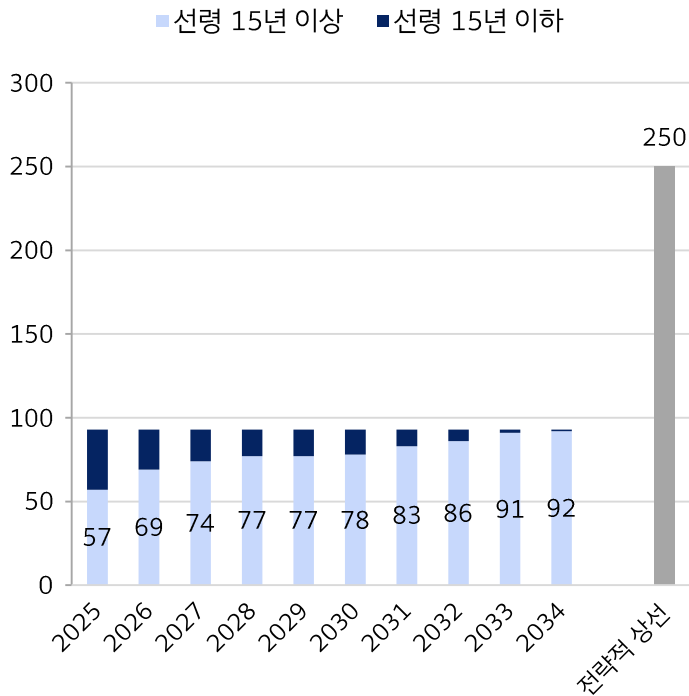


자료: MDS Transmodal, NICE신용평가

## 2. 미국 정책적 대응 현황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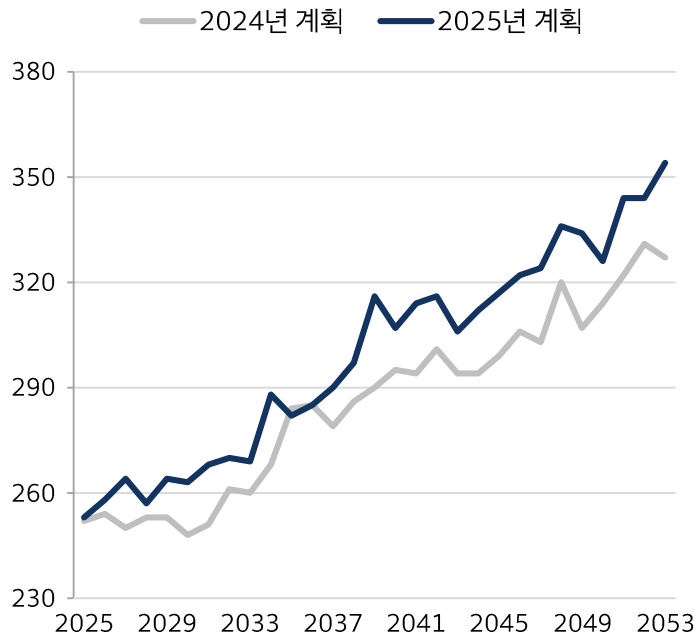
- 중단기: 조선 분야의 동맹국과 공조 및 중국의 조선 시장 견제
- 장기: 투자 유치를 통해 조선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상선 및 함대 확충

미국 노후상선 추이 및 전략적 상선 규모 (단위: 척)



자료: US DOT, SHIPS Act, NICE신용평가  
 주: 미국 상선은 존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항선 대상이며, 상기 추이는 2034년까지 노후 교체가 없음을 가정

미 해군 함대 건조 예산 추이 (단위: 십억\$)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ICE신용평가  
 주: 잠수함, 수상함, 상륙함 기준

미 선박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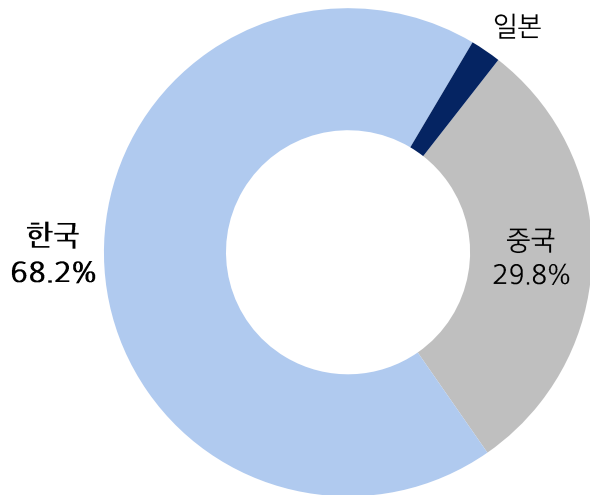
항목	주요 내용
목적	미국 상선 및 조선업 경쟁력 강화, 국가 안보 및 경제 이익 보호
상선 확대	<b>미국 상선 규모를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b>
해상 안보	<b>해상 안보 함대 연간 보조금 723만 달러 (2034년까지 인상)</b>
조선 산업 지원	매년 2.5억 달러 상업 선박 건조 지원 소규모 조선소 매년 1억 달러 지원
미국산 우선 원칙	선박 건조 및 대규모 수리는 주로 미국 내에서 수행
세계 혜택 및 금융지원	조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조선소 설비 확충 지원 Title XI 프로그램 재정비 및 대출 보증 확대
환경 및 규제	환경 검토 절차 간소화(2년 내 완료)

자료: SHIPS for America Act, NICE신용평가

### 3. 국내 산업 현황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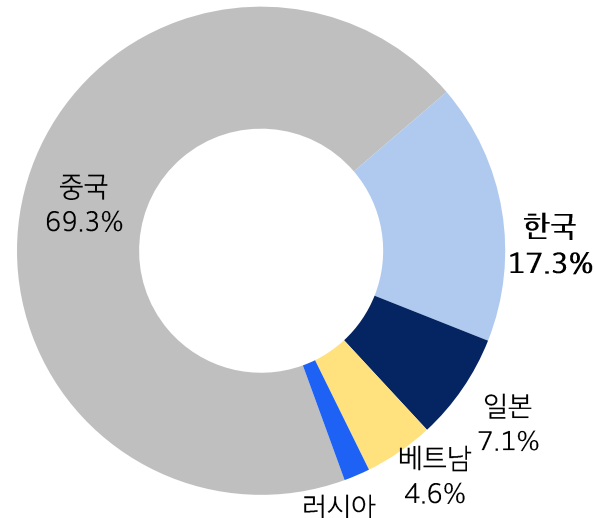
- 미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의 주요 선종으로 예상되는 LNG선, 탱커선 시장지위 우수하여 수주경쟁력 보유
- 해외 군함 시장 내 양호한 건조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직접 투자를 통해 군함 건조 시장 진출 예상

글로벌 LNG선 건조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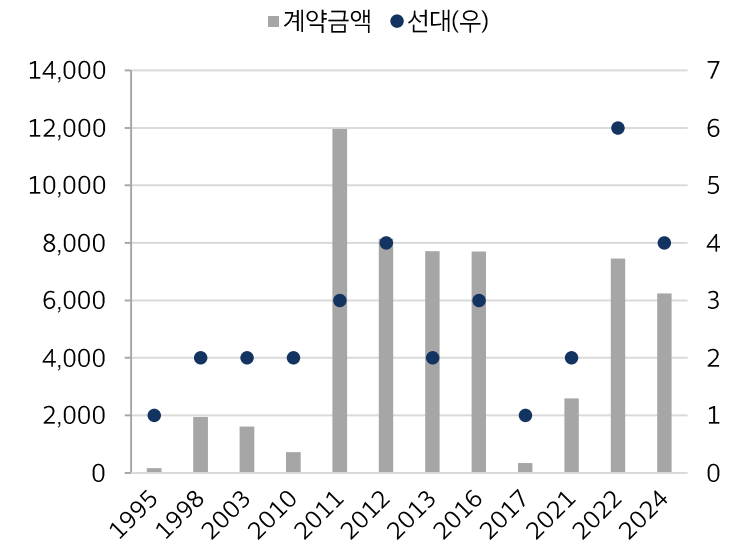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주: 2024년 12월 수주잔고(GT) 기준

글로벌 탱커선 건조 점유율 현황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주: 2024년 12월 수주잔고(GT) 기준

국내 조선사 해외 합정 수주 추이 (단위: 억원, 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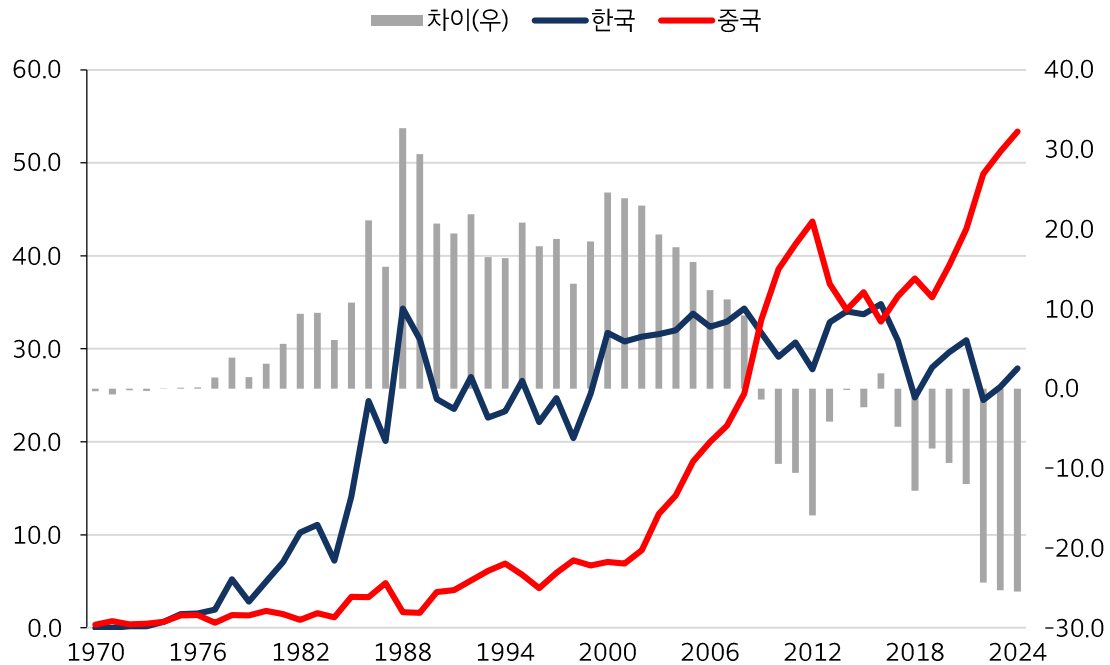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자료, NICE신용평가  
주: 설계, 정비, 성능개량 등의 용역 포함



## 4. 영향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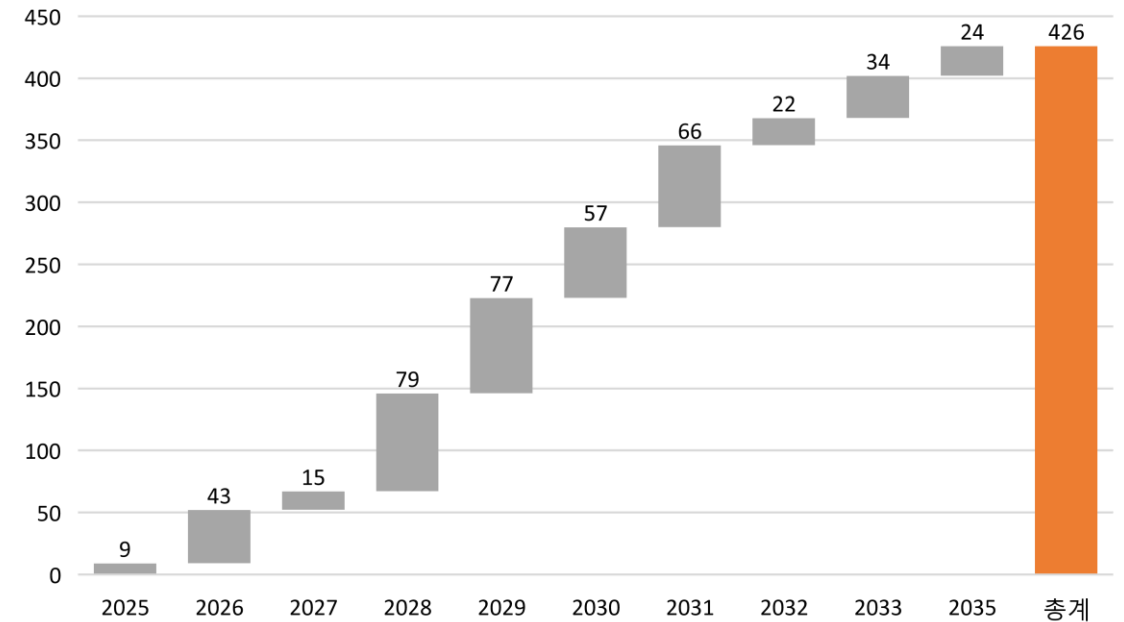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주요 선종에서 중국과의 수주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며 사업기반 저하 가능성
- 미 합정 MRO 아웃소싱·해외 건조 허용, 전략적 상선 확대, LNG선 발주 확대 전망은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예상

한중 인도 점유율 추이 (단위: %, %p(우))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미국 LNG프로젝트 연도별 발주예상 선대 (단위: 척)



자료: Clarksons, NICE신용평가  
주: 프로젝트 별 생산개시시점 기준

종합

02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주요 수출산업의 실적 및 업황 변동성 증가
- 미국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재무부담 확대 불가피

구분	관세 영향	정책 영향	등급 전망	내용
자동차	부정적	부정적	안정적	-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능력 확대로 중장기적인 관세 영향은 완화 가능하나,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 투자부담 예상되나, 재무적 여력 감안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2차전지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 셀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예정으로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소재기업은 미국 생산비중이 낮아 관세부과시 셀기업의 원가부담 상승요인 - 전기차 관세부과에 따른 수요감소, IRA에 따른 구매보조금, 생산보조금(AMPC) 축소시 영업실적 저하 불가피
반도체	부정적	부정적	안정적	- 미국 내 반도체 자체 생산기반이 부족하여 관세부과에 따른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미국의 반도체 생산기반 증가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 - SK하이닉스의 경우, 공급부족 상태인 HBM 매출 비중이 높은 점 감안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조선	-	긍정적	긍정적	- 미 함정MRO 사업, 전략적 상선 확대,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은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 - 다만, 해외 조선소 인수에 따른 운영리스크, 재무부담 등은 모니터링 필요

자료:NICE작성

# Q&A



## **최우석 기업평가본부장**

E-mail : wschoe@nicerating.com

Tel : (02)2014-6234

## **박세영 기업평가1실장 : 자동차, 조선**

E-mail : sypark@nicerating.com

Tel : (02)2014-6246

## **최재호 기업평가2실장 : 2차전지**

E-mail : jaehochoi@nicerating.com

Tel : (02)2014-6286

## **정성훈 기업평가4실장 : 반도체**

E-mail : shjung@nicerating.com

Tel : (02)2014-6210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은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채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평가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평가보고서상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